

由를 짐작케 함이 있다.

註 ① 出土地인 驪州金沙面一帶에는 寺蹟이 풍부하다. 「朝鮮寶物古蹟

調査資料」에 의하면 寺址(走鹿里) 佛像(外坪里) 佛塔(道谷里) 塔(宮里) 등이 보이고 있다.

② 鐵鐘

銅鉢中

口徑 二二·二 cm 肩部徑 九 cm 高 一五·五 cm 一個

銅鉢小

口徑 一一·五 cm 저徑 六·五 cm 高 四·五 cm 八個  
" 一一·五 cm " 六·五 cm " 四·〇 cm 一個

傳僊鳳寺址七層石塔

金 禧 庚

一九六四年初에 滄浪 張澤相氏가 美國 『알링톤』에 있는 故케네디大統  
領墓所 옆으로 自己所有의 石塔一基를 보내기로 提議하였다는 記事가 都  
下의 各新聞에 報道①되었던 事實이 생각날출 믿는다. 이어 秦弘燮敎  
授를 비롯한 數名의 同人들의 調査를 거쳐 그 輪廓이 紙上에 알려진 바  
도 있거니와 筆者도 곧 그 곳을 다녀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後 別다른  
消息도 없기에 이 塔은 無事히 있을 줄만 믿었는데 數日前 新吉洞七  
五의 四로 다시 찾아갔던 바 塔이 있던 자리는 都市計劃에 따라 眞 한가  
운데가 되어 버렸고 所有者 張炳惠氏도 집을 處分하고 移徙했다고 하  
기에 三年동안에 그렇게도 많은 變化가 있었던가고 생각되어 歲月の 덧없  
음이 새삼스러히 느껴졌다. 그럴수록 塔의 行方이 더욱 궁금해져 여기  
저기 물어 겨우 新吉洞八八의 一二號로 同氏를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千萬밖에도 再昨年 또는 昨年 가을(十月)에 『하와이』에 사는 滄浪의 따  
님한테로 보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밤하늘의 불꽃처럼 暫間 閃び었다

가 먼곳으로 가버린 이 塔에 對하여 늘 關心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 記錄  
에나마 남겨 두어야 되겠다고 느껴져 記憶을 더듬어서 다음에 概要를 적  
어 두려고 한다.

一、原所在地 및 滄浪과의 因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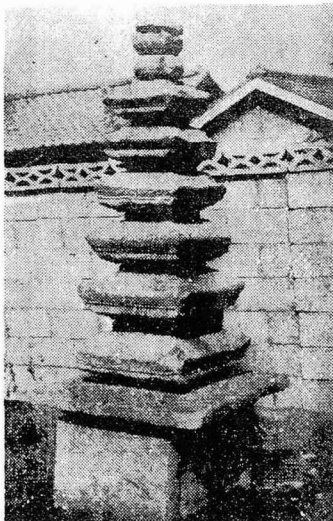
張氏의 故鄉인 漆谷金烏山쪽의 山관이었던 僊鳳寺址②이며 다른 石彫  
物들과 같이 이리저리로 뒹글고 있던 것을 모아서 그들을 서울로 운  
려 보냈었는데 石塔은 一九三二年에 安養別莊으로 移建되었다가 一九六  
二、三年 十二月頃 新吉洞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石佛(高八〇cm)은 張  
氏가 所藏하고 있다고 함

二、塔의 樣式과 年代

現在 單層基壇이며 넓다란 甲石上에 屋蓋石위에 屋身이 붙은 塔身石  
이 六개 얹혀져 있으나 別石으로 생각되는 第一屋身石 및 七層屋蓋石은  
缺失된 것 같고 相輪部도 露盤은 갖추지 못하고 相輪石이 三개 남아 있  
을 뿐이다.

基壇部는 兩隅柱를 刻出한 二面石(撐柱도 하나 있는 듯하나 磨滅로 確  
認 못하였음) 사이에 二枚의 板石을 嵌入하였다. 甲石은 一枚石으로 一  
隅가 破損되었음며 두꺼운 副椽이 달려 있고 위에는 屋身의 頂이 三段얹  
게 마련되었다.

第一層屋蓋石... 屋蓋추녀에 橫으로 一線이 그어졌고 그 上面엔 帳幕  
을 드리우고 下面엔  
蓮꽃이 十一개 (或  
은 十二?)를 섬세  
한 솜씨로 刻出하였  
고 屋蓋石위에 매우  
낮은 屋身을 造出하  
였다. 落水面은 曲  
線을 이루다가 아래  
에 이르러 平坦해진  
感이 있고 轉角은 곧



이 문득하고 屋蓋全體가 重厚한 感覺을 주는 裝飾部分이 더 있으므로 因함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同手法인 屋身石이 이 위에 쌓여져 있는데 第一層屋蓋石과 第五層屋蓋石은 各各 轉角이 一개씩 破損되었다. 대체로 이 塔은 羅塔에서 보는 바와 같은 雄大莊重한 點은 없고 纖細하고 雅淡하며 均衡잡힌 塔이라는 印象을 준다.

屋蓋石과 屋身이 한물로 된 點落水面이 曲線을 이룬것 基壇樣式 屋蓋 추너에 帳幕을 刻出하는 등의 諸點으로 미루어 高麗塔으로 推定된다. 特히 屋蓋에 帳幕을 마련함은 일찌기 智光國師玄妙塔에서 본바로 『페루사』系統의 影響을 받은 듯한 玄妙塔의 手法과 恰似한 點도 있어 玄妙塔의 年代가 宣宗二年(A, D 一〇八五)라고 한다면 그보다 過히 떨어져 지 않는 時代의 作品으로 보고자 한다. 此은 羅代에 들어 浮屠藝術의 高度로 發達되면서 塔表面裝飾에 汲汲하던 時期의 塔婆研究에 좋은 資料가 된다고 믿어진다. 原所在地를 仔細히 調査하여 본다면 缺失部分이 나옴런지도 모르겠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됨도 이 塔에 對한 未練만 이 아닐 것이다.

註 ① 一九六四年一月二十八日 경향신문, 동아일보 參照  
 ② 慶北漆谷郡 北三面崇島洞 山一에는 寶物二五一號인 大覺國師碑 (高麗仁宗十年壬子 一一三三年)가 서있으므로 보아 僊鳳寺址가 틀림없다.

實測值(單位 cm)

基壇部	高	幅	隅柱幅	甲石長	甲石厚
	四五·五六二·五四·五	九三·二	六·八		
塔身部	塔身石高	屋身高	身幅	隅柱幅	屋蓋長
(屋蓋石高)					
第一層	二九·〇	三四·五	四·八	六一·五	
二	二八·〇	四·八	三〇·〇	四·〇	五七·〇
三	二五·〇	三·七	二五·八	三·六	五一·三
四	二三·〇	三·四	二三·七	三·三	四七·二

相輪部	高	幅
一石	一〇·五	
二石	一〇·〇	一八·〇
三石	六·〇	一九·〇
		塔全高三七·六

龍仁出土 梵鍾과 飯子

鄭 良 謨

近年 古鐵探知機로 許多한 文化財가 被害를 입고 있거니와 여기 紹介하는 二點의 一括遺物도 古鐵蒐集者인 卞희수씨가 지난 四月二十日 京畿道 龍仁郡 水枝面 豐德川里에서 古鐵蒐集中 캐내어 申告하여 國立博物館에 所藏케된 것이다.

一、梵鍾

高麗後期梵鍾의 一般樣式을 갖추고 있는 小鍾으로 鍾頭는 龍鈕와 甬筒으로 맺어졌고 鍾身에는 上·下帶와 乳廓·飛天·撞座 등이 陽鑄되어 있다. 鍾頭의 龍鈕는 甬筒보다 若干 높고 (龍背와 右

